

‘숨이 턱턱’ 사람잡는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 급하다

광주·전남 울 은열질환자 66명...건설 노동자·택배기사 등 방치 야외작업 자제·충분한 휴식 가지고 독거노인 사회적 관심도 필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최대 7일간 이어지면서 무더위에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야외 건설 노동자나 택배 기사, 장문 없는 좁은 방에서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여름을 보내야 하는 독거노인 등은 자칫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해 숨진 노동자는 26명이다. 특히 사망자의 90%(22명) 이상이 7월 말부터 8월 사이(7월 20-8월 30일)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도 이날까지 66명의 은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발효된 폭염경보(일 최고 기온 35도가 넘는 날이 2일 이상일 때)가 7일째 이어지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

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폭염 대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매시간 10-15분씩(폭염경보 15분·폭염주의보 10분)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현행 건설업계의 입찰구조(최저가 낙찰제),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정부의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직부장은 “1군 건설사의 경우 그나마 휴게시설이 마련됐다고 휴게시간을 준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세한 작업장에서는 엄두도 못낸다”며 “또 휴게시간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늦어진 공정을 맞추느라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으려면 폭염 상황을 고려한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들도 폭염 안전대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양성현 택배노조 조직국장은 “하루 배달 물량이 정해져 있어 택배노동자들이 무더위를 피해 따로 쉬는 시간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며 “택배를 분류하는 집하장에도 선풍기조차 턱없이 부족해 새벽부터 땀을 뻘뻘 흘린 채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4개 부처도 이같은 점을 감안, 이날부터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사병 3대 예방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

는지 점검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공사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진행하는 지하철 공사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또 광주를 비롯, 전국 6만 건설현장 등에서 해당 시간 대에 작업 중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낮 최고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 되겠다”며 “오후 2시-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작업 시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거기가 어디라고 엄마보다 먼저가니...”

‘학폭 사망’ 엄마, 편지와 함께 국민청원 올리고 철저 수사 촉구

“거기가 어디라고 엄마보다 먼저가니...”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의 친모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자필 편지를 올리고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괴롭힘 동영상과 학교폭력을 의심할만한 내용의 자녀 유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니 증거를 더 가져오라”던 경찰 수사 행태를 접했던 만큼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A씨는 지난 2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 보배드림에 ‘광주 학폭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먼저 간 아들에게 쓴 자필 편지를 올렸다.

편지는 A4 1장 분량이 안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더 이상 아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들을 향한 그리움 등을 느낄 수 있다.

A씨는 편지에 “아들아, 너를 품은 10개월은 정말 행복했어. 17년 하고도 6개월을 입히고 먹이고 키웠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먼저가니”라고 썼다. 또 “니가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그랬지? ‘일주일만 슬퍼하고 다음엔 웃고 다녀주라’고, ‘엄마 웃는게 좋다’고, ‘엄마가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어. 니가 너무 그립거든’이라고 적었다.

엄마는 “너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전부 혼내줄게. 다음에 우리 또 만나자, 그땐 엄마 곁에 오래 머물러줘”라며 편지를 맺었다.

A씨는 편지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에 대한 관심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하는 만큼 동의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경찰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겠냐는 게 유족들의 바람이다.

유족들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경찰

대원아,
너를 품은 10개월은 정말 행복했어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나 엄마 또 엄마,
17년하고도 6개월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엄마한테 감사하다 정말 감사...
니가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그랬지?
일주일만 슬퍼하고 다음엔 웃고 다녀주라
엄마 웃는게 좋다
엄마가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어. 니가 너무 그립거든.
다음에 우리 또 만나자
그땐 엄마 곁에 오래 머물러줘

엄마가.

수사가 미성년자인 점 등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소극적인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접했던데다, 수사 과정에서도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 대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데도 왜 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 지, 11명의 가해 학생들 중 3명만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지 납득할만한 수사 상황도 전해지지 못했다.

엄마의 글은 게시된 23일 이후 현재 3만명에 육박하는 누리꾼들이 읽었고 “철저히 조사 좀 했으면, 아이들이 무서워 학교 다니겠다”, “학폭 이슈가 청와대 청원 만큼 이슈인데, 국회에 선 관련법 손볼 생각도 안하고 답답하다”는 댓글과 빠른 수사,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동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광주광산경찰은 26일 가해 학생으로 특정된 11명 중 범행 횡수, 가담 정도, 괴롭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해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지난 23일 광주 북구청 동물정책팀 직원들과 동물 명예감시사원들이 반려견 등록 자신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대한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성폭력 피해 의뢰인 추행 변호사 법정구속

광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자신이 변호하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지정 국선변호사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 변호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도 부과했다.

A 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도 애초 예정했던 선고 기일을 4차례나 변

경했고 재판 연기 사유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늑장재판’,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임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 당시 상황 재연을 요구하는 등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법조인으로 국가의 정의와 법 질서를 무너뜨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 등도 반영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휠 고의 훼손’ 업주 징역 1년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광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부 직원들과 공모, 지난해 2월부터 10월 20일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공구를 이용해 일부러 훼손하고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교체토록 권유해 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시에 등록하지 않고 타이어를 교체한 뒤 승용차 휠 알라인먼트를 점검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휘어져 있었다. 이상대로 운행하면 사고 난다”는 A씨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한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